



보관 및 하역 물류혁신 통한 물류비 절감 이뤘

문국현 / 유한킴벌리 대표

국내 대표적 생활용품업체인 유한킴벌리가 2002 물류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문국현 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성과 지표의 달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최고 수준의 물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고객지향적인 최상의 물류서비스 제공하고 물류안전과 환경, 품질 분야의 혁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한킴벌리의 물류시스템은 ‘차시물류 시스템 및 아웃소싱’이 섞인 혼합 형태로써 서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 ‘고객 서비스와 코스트 감소’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문 사장은 “이 시스템은 재고량을 낮추거나 물류의 거점을 합리화해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한킴벌리는 ERP 시스템 도입 및 재고 감축과 결품 감소를 통한 “소비자 요구의 빠른 대응”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상생(Win-Win) 프로젝트인 자동재고보충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롯데 마그넷과 한국물류와의 ECR/SCM 시범 사업에서 양사 재고량의 감소는 물론 결품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제조



업계에서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국현 사장은 “물류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복잡하던 공급망 프로세스를 효율화했으며 물류업무 조직을 철저하게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로 재정비하고 해외의 선진 물류업무시스템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통합 주문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고객의 주문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제공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차량위치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물류 표준화를 위한 EDI 및 바코드 시스템의 완벽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문국현 사장은 “사내 물류 대학을 설치해 현장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는 물론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교육을 실시한 결과 물류인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것이 물류 성공의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으로 물류정보 흐름의 통합과 일관성을 유지해 온 유한킴벌리의 지속적인 물류혁신 사업으로 물류비 절감에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 □